

개인정보 유출과 법정 손해배상 범위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문제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지식거래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인 원고는 자신의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대법원 관례와 상반되는 판단'이 있어야 상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액사건이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한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살펴보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은 손해 발생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

자가 손해 입증의 어려움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 취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정보주체인 원고로서는 손해 발생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지만,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사고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성명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된 상태로 유출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정보가 없는 한 유출된 이메일 주소만으로는 정보주체를 식별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해당 사이트는 지식공유 사이트로서 가입자의 유형이 매우 폭넓고 다양해, 가입 시기나 이용내역 등이 함께 유출되지 않은 이상 이메일 주소만으로 가입자의 성향이나 수요를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다고 해 정보주체에게 사생활·명예의 침해나 재산적 피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은 낮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마케팅 등 영

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확산될 가능성도 낮았다.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이후 2년 이상 스팸메일 증가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는 사고 직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사이버경찰청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원고에게도 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하며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등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원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법정손해배상은 손해 입증이 어려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보호 기능과 책임 제한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사건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손해 입증을 완화하면서도, 실제 손해가 없음을 기업이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남용을 방지했다.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가상자산거래소의 신뢰



김지수첩

안승진
(금융부)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은 세계적인 제도화의 문턱에 있다. 주요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의 자체적 가치를 인정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제도화를 통해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관련한 규제도 확대했다. 기업 가치를 담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도 내재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흐름이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는 디지털자산의 법제화는 물론 후속 법령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뼈대가 될 '기초법'도 마련되지 않았다. 감독기관 간에 견해차가 지속되며 관련 입법

이 늦어지는 가운데 이해관계자인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입장에 정부와 달라서다.

정부는 최근 향후 디지털자산 규제의 뼈대가 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논의하면서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와 은행 지주사의 지분 한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디지털자산이 자본시장으로 편입되는 만큼, 거래소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지배구조를 분산하겠다는 의도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는 모두 이같은 대주주 지분 제한 요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거래소들이 인수·합병 등을 활용해 차세대 경쟁력을 제고할때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하는 법령은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5대 거래소는 모두 비상장사인데, 대주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지분을 처분한다면 기업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

가받을 수도 있다.

다만 거래소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다. 디지털자산이 자본시장에 편입할 때 현행 거래소의 규제나 안전장치로 불충분하다고 느껴서다. 거래사고, 암호화폐 탈취 등은 투자자들이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불신하는 원인이다.

최근에는 거래소 직원의 실수로 이벤트 보상 2000원이 '2000BTC'로 지급되는 사고가 있었다. '존재하지 않는 코인'을 지급한 만큼 거래소 시스템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해당 거래소는 고객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한 순간의 착오로 2000원이 1900억원으로 둔갑했다. 실제 출금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1900억원에 달하는 '매도 인증샷'을 목격한 투자자의 신뢰는 후퇴했다. 경영 권리를 요구하기에 앞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asj123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9일 (음 12월 2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문서와 관련된 부분을 주의하세요. 60년생 투자나 거래는 미루는게 좋습니다. 72년생 부부,연인운이 좋으니 가족, 연인과 함께 하세요. 84년생 꼭 가야 한다면 남쪽으로 가는게 좋습니다.



소

49년생 형제,친구와 함께 일을 도모하면 매우 좋습니다. 61년생 거래를 하면 이득이 있습니다. 73년생 명예가 오으니 하루이니 잘 활용하세요. 85년생 재물운과 이성운이 모두 좋은 하루입니다.



호랑이

50년생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62년생 구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언행에 주의하세요. 74년생 가족을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86년생 부모님과 의견이 달라 도 따르는데 좋습니다.



토끼

51년생 여행을 가도 실속이 없고 피곤합니다. 63년생 문단속과 물건 관리에 유의하세요. 75년생 배우자나 연인과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7년생 양보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입니다.



양

52년생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이 풀리는 하루입니다. 64년생 동료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76년생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결과가 좋습니다. 88년생 싸우던 이와 화해할 수 있습니다.



뱀

53년생 여행하기 좋은 하루입니다. 65년생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접근해 보세요. 77년생 건강과 물관리에 좀 더 신경써세요. 89년생 혼자 생각보다는 동료와 의논하는게 좋습니다.



말

54년생 노력에 대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66년생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78년생 일보다는 가정을 먼저 돌보세요. 90년생 큰 일을 위해 작은 손실은 감수하세요.



고양이

55년생 외출보다는 집에서 쉬는게 좋습니다. 67년생 동업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79년생 진행하는 일에 실속이 없으니 대안이 필요합니다. 91년생 약속을 지키면 명예가 크게 옵니다.



원숭이

56년생 주변 사람으로 인해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68년생 고집보다는 조언을 듣는게 좋습니다. 80년생 너무 욕심을 부리면 일을 그리칠 수 있습니다. 92년생 과한 자신감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닭

57년생 내가 싫은 일은 남도 싫은 법입니다. 69년생 여행이나 외출을 하면 운이 좋습니다. 81년생 재물운이 있으니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93년생 관심을 갖던 사람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개

58년생 힘들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70년생 노력에 대한 과실이 매우 달콤합니다. 82년생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니 기쁩니다. 94년생 본인 생각대로 추진하는게 좋습니다.



돼지

59년생 고민은 많으나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71년생 지금보다는 다음을 기약하세요. 83년생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 복이 있습니다. 95년생 옛 친구에게 연락하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상회의四季

방생의 메시지

사로잡힌 동물을 놓아준다는 뜻의 방생은 불교 의례이다. 불교의 핵심 계율인 불살생과 비폭력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행위로 단순히 동물을 풀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명을 대하는 겸허함과 참회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에서 비롯한다. 인간과 동물·식물과 자연 모두가 인연으로 얽혀 있다는 관점에서 다른 생명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는 곧 자기의 삶을 해치는 행위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는 계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다. 이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는 사회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방생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물고기를 강이나 바다에 놓아주는 장면을 먼저 생각한다.

그렇게 된 것은 이동과 방류가 쉬운 물고기가 방생의 상징처럼 됐지만, 불교가 말하는 것은 특정 동물에 국한된 의식이 아니고 모든 생명을 향한다.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악지를 이용하지 않으며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려는 생활방식도 모두 방생의 연장선에 있다. 현대 사회에서 방생의 의미는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다. 개발이나 과잉 생산이 미덕인 현대에서 방생은 단지 의례로 그치지 말고 삶의 태도로 해석되어야 한다. 환경을 생각하며 소비해야 하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악한 사람 착취하지 않기 등의 사회적 노력 또한 현대적 방생이라고 할 만하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 타인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는 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선택 하나하나가 모두 방생의 실천이다. 불교가 방생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지속되고 그 시작은 마음과 일상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5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5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1				5		
			4			2		
	2							4
6		8					7	
4								9
	1					4		6
8							2	
		3			6			
		9				6		1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스도쿠 3650

결합형스도쿠110

초하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8	9	7	9	8	6	2	2
8	7	2	9	2	6	8	9	1
9	2	6	8	2	1	7	9	8
9	8	7	2	6	8	9	1	2
6	9	1	8	9	2	2	8	7
2	2	8	1	7	9	8	6	9
7	1	8	9	8	9	2	2	6
8	6	2	2	1	7	9	8	9
2	9	9	6	8	2	1	7	8

8	6	2	2	9	7	1	9	8
2	9	8	9	1	6	2	8	7
7	1	9	8	2	8	6	2	9
2	8	7	6	2	9	8	9	1
9	9	1	8	7	8	2	6	2
8	2	6	1	9	2	9	7	8
1	7	2	1	8	9	8	9	6
6	2	8	9	8	2	7	1	9
9	8	9	7	6	1	8	2	2